

전북도,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침체에 빠진 군산시 투자유치 가속화 기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조항 신설 기업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전북도는 5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체감경기 효과를 부양하고, 공장 매각과 재가동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기업투자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에 지원을 통한 지역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해주는 일부 조항이 신설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4호 : 2018. 5. 1.)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

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고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한 수준(도비:시군비 = 50%:50%)으로 지원하게 된다.

즉, 일반지역인 군산시의 경우 도비 30%, 시군비 70%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설하여 도비 50%, 시군비 50%로 군산시 부담비율이 20% 경감된다.

지난 4월 5일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은 2020년 4월 4일까지 2년이다.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질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좋은 일자리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조례 개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새만금 신공항, 대통령 당대표 '엇박자' 드러내"

평화당 "무안공항 이용 이 대표 말에 전북지역 분노"

민중평화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엇박자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5일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유성엽·김종회·김광수·박주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만금 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이 대표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평화당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전남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

전북도민들과 재정 전북 항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반영됐다"면서 "올해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반영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망언과 공항건설 용역비 20여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성기자



전국체전 준비상황 점검
익산시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5일 실내체육관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익산종합운동장의 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협동조합 대상(大賞) 참여 조합 공개모집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2018 협동조합 대상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공개모집 한다고 5일 밝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발굴 홍보자원을 통한 판촉지원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긍정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협동조합발전위원회와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가 선정됐다. 2017년말 결산 완료한 전북 소재(사회적)협동조합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9

월 14일 까지 신청서류 제출 '서면심사 현장심사 대면심사' 등 심사과정을 통해 총 4개의 협동조합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협동조합에는 표품홍보 영상 제작이 지원 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협동조합 대상은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많은 협동조합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협동조합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도민, 내년도 예산 '산업경제 분야' 투자가장 선호

지역별로 군산·익산 선호도가 가장 높아

전북도가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로 산업경제를 손꼽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군산 익산지역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전북의 경제여건 상황을 반영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농업 농촌 복지, 보건, 지역개발, 문화, 관광, 환경, 안전 순으로 조사됐다.

/김진성기자

이 같은 결과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예산편성 방향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분야별 투자 방향 결정 등에 활용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주민 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전북대 강주연 대학원생 국제학회 최우수 논문상

사회적 기억 위한 아카이브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전북대학교 강주연 대학원생(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은 최근 태국에서 열린 ICCO-2018(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Open Library to Open Society)에서 최우수 논문발표상(Best Paper Award)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CCO 위원회는 사회적 기억의 수집과 보존이 학계 이슈로 부

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라고 호평했다.

최우수 발표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한 이 연구는 간단한 심사 후에 JISTap(Scopus)에 출간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강 대학원생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매년 2천만원의 학술활동비와 별도의 등록금 등을 지원받아 '사회적 기억 및 기록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도구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전북지역 인적자원 개발위 위원회 회의

전주상의, 올해 인력·훈련 수요조사 중간보고

전북 지역의 인력수급을 총괄하는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최희호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지난 5일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정순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양성모 지사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했다.

지역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매년 인력 훈련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19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했다.

또한, 기존 훈련 수요조사에 더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

간 단축에 따른 영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 하는 지원 방안을 조사,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올해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를 하면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군산 자동차 산업 등의 위기로 우리 지역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무엇 보다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수요조사 최종결과는 9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올해 인력양성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